

CSL을 이용한 한국인의 프랑스어 운율학습 방안*

A Learning Method of French Prosodic Rhythm for Korean Speakers using CSL

이은영** · 이문규*** · 이정현****

(Lee E.-Y. · Lee M.-K. · Lee J.-H.)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earning method of prosodic rhythm for Taegu North Kyungsang Korean speakers to learn French rhythm more effectively. The rhythmic properties of spoken French and Taegu North Kyungsang Korean dialec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fore, we try to provide a basic rhythmic model of the two languages by dividing into three parts: syllable, rhythmic unit and accent, and intonation. To do so, we recorded French of Taegu Kyungsang Korean speakers, and then analysed and compared the rhythmic properties of Korean and French by spectrograph. We tried to find rhythmic mistakes in their French pronunciation, and then established a learning model to modify them. After training with the CSL Macro learning model, we observed the output result. However, although learners understand the method we have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which is possible by repeating practice must be arranged to be actually used in direct verbal communications in a well-developed learning programme. Hence, this study may play an important role at the level of preparation in the setting of an effective rhythmic learning programme.

Keywords: Korean-French, prosody, intonation, rhythmic unit, syllable

1. 서론

지금까지 프랑스어 발음교육은 분절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운율적 요소는 문형에 따른 억양의 차이, 즉 변별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각 언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운율 특성은 그 변별적 기능 수행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어 구사력의 유창성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발음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운율 특

* 본 논문은 1998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된 것임.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불어교육학과

성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언어는 분절음층과는 별도로 운율층에서 저마다 독특한 운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어 발음교육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훈련시키지 않으면 한국어의 운율특성에 의한 간섭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프랑스어 발음교육과정에도 별도의 운율습득 훈련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국어의 운율적 간섭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장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어 교육의 주된 목표가 원활한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워지려면 변별적 기능을 가지는 분절음 층위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리듬, 액센트, 억양 등 초분절적 특성을 지닌 운율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프랑스어 운율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대구·경북 방언을 쓰는 한국어 화자가 구사하는 프랑스어 자료를 대상으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운율적 특성을 스펙트로그래프를 이용하여 관찰·비교하고, 프랑스어 발화시 나타나는 한국어 학습자의 운율적 과오들을 찾아내어 이를 교정하기 위한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CSL Macro에서 준비한 학습모델로 훈련한 결과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운율 특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운율학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운율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발화상황이나 화자간의 차이, 동일 화자의 발화시 심리적 차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율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두 언어의 기본적인 운율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면서도 가능한 한 단순한 모델을 기술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F. Wioland은 외국어 운율 학습시 우선 서술문 형태의 기본운율 모델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형태의 억양 습득은 그 후에 하여야 하며, 이 단계에서 강조액센트(*accent d'insistance*)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강조액센트가 실제 발화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초보학습자에게는 오히려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강조 또는 감정표현 등의 억양은 학습에 의존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습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언어의 기본운율 모델을 추출해내기 위하여 음절, 리듬단위와 액센트, 억양, 세 항목으로 나누어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운율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2.1 음절

Clements & Keyser(1983)는 대부분의 언어에 대해 음절의 보편적인 기본 유형을 CV, V, CVC, VC의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이때 CV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기본 유형이고, 여기에 두음탈락과 말음삼입이라는 두 가지 규칙이 작용해서 V, CVC, VC 유형이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비교해보면 프랑스어에서는 CV, CCV, CVC, V, CCV, CVCC, VC, CCCV, CCVCC, CCCVC, VCC, CVCCC, VCCC 등 13종류가 허용되는데 비해¹⁾, 한국어에서는 CV, V, CVC, VC의 4종류 밖에 허용되지 않는다²⁾. 즉 한국어 음절형의 가장 큰 특징은 두음이나 말음 자리에 자음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³⁾. 요컨대 한국어는 앞서 제시한 네 가지 보편적 기본유형 CV, V, CVC, VC만을 가지고 음절내 자음연쇄는 허용하지 않지만, 프랑스어는 닫힌 음절인 VC유형 보다 열린 음절인 CCV유형을 더 많이 가지며 삼자음 연쇄를 허용하여 훨씬 더 다양한 음절구조를 나타낸다. 음절내 자음연쇄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어 화자가 자음연쇄를 허용하는 프랑스어를 배울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추측하건대 음절 수, 리듬, 피치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모국어 간섭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자연스런 일상 구두담화에서 사용된 프랑스어의 음절유형들 중, 열린 음절은 80.55 %(CV, CCV, V, CCCV)를 차지하는 반면에, 닫힌 음절은 전체의 1/4에 못미치는 19.45 %(CVC, CCVC, CVCC, VC, CCVCC, CCCVC, VCC, CVCCC, VCCC)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액센트가 놓이는 자리인 리듬단위의 마지막 음절만 관찰해보면 가능한 유형의 수가 제한되면서, 열린 음절 49.5 %(CV, CCV)와 닫힌 음절 50 %(CVC, CCVC, CVCC, CVCCC)로 빈도수도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프랑스어에서는 두음 자리가 비어 있는 음절 앞에 오는 말음은 뒤따르는 음절의 두음으로 재음절화되는 현상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리듬단위 내에서는 모음 앞 말음 자음을 문법경계나 단어경계로써 강제적인 방법으로 막더라도 두음화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cette # année*[set # ane]의 경우 말의 속도에 따라 아주 천천히 말할 때는 [set a ne]로 음절이 구분되겠지만, 정상속도나 빠른 속도에서는 [se ta ne]로 재음절화된다. VC#V가 V.C#V로, 즉 말음 C가 뒷 음절의 두음으로 된다. 프랑스어의 음절은 이러한 재음절화를 통해 대부분이 열린 음절 구조로 실현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두 언어 간의 음절구조 차이는 음절수에 영향을 미치고, 음절수는 마치 음악 악보에서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음표수처럼 운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음절수가 다르게 실현된다면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듣는 사람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사소통을 다소간 힘들게 할 수가 있다. 프랑스어의 schwa, 즉 «e muet»는 음절 수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철자 e (또는 zéro, 드물게 ai, on)로 표기되는 «e muet»는 주변 음성환경에 따라 유지 탈락이 가변적이다. 그러나 자연스런

1) F. Wioland은 실제 실험을 통해 프랑스어 음절 유형들을 사용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CV(55.5 %) 유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CCV(14.0 %), CVC(13.5 %), V(10.0 %) 유형이며, 그밖에 CCVC(2.5 %), CVCC(1.5 %), VC(1.3 %), CCCV(1.0 %), CCVCC(0.3 %), CCCVC(0.2 %), VCC(0.1 %), 기타(0.1 %)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자연스런 발화상황에서 나타난 한국어 음절구조를 분석하여 사용빈도에 따라 분류한 연구결과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다만 한국방송공사(1993)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가능한 음절조합은 1,453개라고 한다. 이를 음절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CVC형이 1061개(73.0 %), CV형이 288개(19.8 %), VC형이 83개(5.7 %), V형 21개(1.4 %)로 CVC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조합 가능한 종류와 실제 사용빈도는 다르므로, 사용빈도를 비교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

3) 15세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단어의 첫 머리에 자음연쇄가 허용되었으나(예: 때(時), 꿀(蜜), ...), 이후 단일자음으로 바뀌었다. 말음자리에는 ‘ㄱ, ㄴ, ㄷ, ㄹ, ㄺ, ㄻ, ㄼ, ㄽ, ㄾ, ㄿ, ㅂ’ 11 종류의 자음군이 올 수는 있지만 말음자리 자음연쇄 불허 원칙에 따라 한 자음만이 음성으로 실현된다(예: 값, 닭, ...).

발화상황에서는 언어 경제원칙에 따라 리듬단위 내의 음절 수를 가능한 한 줄이려 하므로, 의미전달이 보장되고 조음기관이 허락한다면 «e muet»는 탈락된다. 예를 들어 au revoir는 [o rə vwa:r] 3음절이 아니라 [or vwa:r] 2음절로 실현된다.

따라서 음절구조상의 재음절화와 schwa음 탈락, 이 두 현상은 프랑스어에서 쓰기 단위와 말하기 단위 간에 불일치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게다가 프랑스어에만 나타나지는 리에중현상은 불일치를 더 심화시킨다.

2.2 리듬단위와 액센트

발화체의 가장 기본적인 소리 단위는 음절이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한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은 모두 같은 길이와 세기로 발음되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음절들과 묶여서 문장 전체가 몇 개의 토막으로 발음된다. 이 때 몇 개로 나누어진 말토막을 리듬 단위(unité rythmique)라고 하는데 한 문장을 이루는 리듬 단위의 수는 발화 속도나 조건 또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다. 발화 속도가 느리면 한 문장을 구성하는 리듬 단위의 수가 많아지면서, 각 리듬 단위의 길이는 짧아지는 반면, 발화속도가 빨라지면 리듬 단위의 수는 적어지고 각 리듬 단위의 길이는 길어진다. 한편 리듬 단위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한 문장이 다르게 분절되어 통사적 의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화자의 감정적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의미적인 차이를 고려한 리듬단위 분절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내에서 이미 분절되어 사용된 리듬단위가 갖는 음성 특성에 있다. 따라서 리듬단위 자체의 특성과 리듬단위 경계 특성에만 초점을 맞춰 기술하기로 하겠다.

모든 언어는 리듬 단위를 구성하는 음절들 중 한 음절에 반드시 액센트를 주는데, 발화의 리듬감은 바로 이 액센트의 반복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언어를 리듬 단위 특성에 따라 크게 구분하자면, 음절 수가 많아짐에 따라 리듬 단위 전체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음절 박자 언어와 액센트 간의 시간 간격이 거의 같은 길이로 발음되는 액센트 박자 언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액센트는 강세 액센트일 수도 있고 길이 액센트일 수도 있으며, 액센트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리듬 단위 내의 음절 수가 늘어날 때 각 음절이 자신의 길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지속시간이 늘어나므로 흔히 음절 박자 언어⁴⁾로 분류하는 반면, 영어나 프랑스어는 음절 수가 늘어나더라도 액센트 간의 지속시간이 거의 같은 길이로 발음되므로 액센트 박자 언어로 분류한다. 그러나 영어는 리듬 단위 앞쪽에 강세 액센트를 갖는 반면, 프랑스어는 리듬 단위 뒷쪽에 길이 액센트를 갖는다. 이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전자는 전륜구동형인데 비해, 후자는 후륜구동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리듬단위 특성은 어떠한지 비교해 보자.

4) 조운일의 실험 결과는, 한 문장 안에서 강세를 가지는 두 음절 사이의 비강세 음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의 길이가 증가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음절수의 증가와 전체 길이의 증가비는 같지 않아서 음절수 '1:5'의 길이 비율은 어떤 경우에도 최고 '1:3.5'를 넘지 않으며 최하 '1:2.12'의 비율을 보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대구말과 표준말 리듬의 실험 음성학적 비교연구: 길이를 중심으로", 말소리 27-28, 대한음성학회, 1994). 그러나 성철재는 한국어가 영어와 같은 정도의 강세 박자 언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세를 기반으로 한 언어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한국어 운율 구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지속시간과 관련하여", 국어학 27, 국어학회, 1996).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랑스어는 하나 이상의 낱말이 연결된 통사단위가 하나의 리듬 단위를 이루고, 리듬단위는 마지막 음절이 길어지는 운율적인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리듬 단위는 경계획정 기능을 수행한다. 프랑스인의 자연스런 발화체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리듬단위는 대부분 5음절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한 리듬단위당 평균 음절수는 2.5 음절 가량이었다. 예문 “A la fac.”에서 *faculté*가 한 음절인 *fac*로 축약되었는데, 그 이유는 리듬단위당 음절수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음절 단어의 음절수를 줄인 것이다. 최근 축약어나 약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연속되는 리듬단위들은 각 리듬단위 간에 시간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한 리듬단위는 음악 악보의 한 마디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다. 예를 들어 “Stop au feu rouge”에서 1음절과 3음절로 된 각각의 리듬단위는 [stop § / o fø ru:ʒ] 처럼 첫 리듬단위는 쉼(§)을 주고 두 번째 리듬단위는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음절당 배당시간을 줄임으로서 두 단위 간 시간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때 쉼은 음악에서 쉼표와 같고 음절은 음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프랑스어에서 리듬단위의 시간균형 문제도 중요한 운율특성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리듬단위가 갖는 음향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리듬단위 내에는 마지막 음절처럼 발음상 특권을 누리는, 힘이 강한 자리와 그 외의 음절처럼 힘이 약한 자리가 있다. 강한 자리인 마지막 음절에서는 조음 에너지의 조장으로 음절의 지속시간이 다른 음절에 비해 2배 이상 길어진다. 강세액센트를 배제한 상태에서 리듬단위 마지막 음절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길이액센트(*accent de longueur*)를 리듬액센트(*accent rythmique*)라 한다. 또한 리듬단위의 마지막 음절은 리듬단위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주파수 변화를 보인다. 요약하자면 리듬액센트란 음향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조음에너지는 늘어나면서 마지막 음절이 길어지고, 주파수가 점진적인 상승 또는 하강곡선을 그리는 특징을 갖는다. 리듬액센트의 지속시간과 주파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음절 리듬단위 : ----↘ 또는 ----↙
 2음절 리듬단위 : -- ----↘ 또는 -- ----↙
 3음절 리듬단위 : -- -- ----↘ 또는 -- -- ----↙
 4음절 리듬단위 : -- -- -- ----↘ 또는 -- -- -- ----↙

위 도식을 하나의 모델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

이 모델은 프랑스어 리듬단위의 음성특성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기초훈련 즉 리듬액센트 훈련에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한편 강조액센트는 리듬 액센트와는 별도로 그 위에 덧붙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며, 이

를 흔히 세기액센트(accent d'intensité)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길이, 세기, 높이, 세 파라메터 모두가 증가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프랑스어의 운율은 앞서 제시한 기본운을 위에 강조액센트가 중첩된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한국어도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낱말이 모인 리듬단위로 발음되고, 한국어 리듬단위가 갖는 고유한 음성적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 리듬단위 내 평균 음절 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와 있지 않으나, 프랑스어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의 발화 습성에서 음절 축약 현상이 두드러진 경향(예: 선생님→샘, 중앙도서관→중도, 학사경고→학고, ...)을 보이는 것을 보면, 점점 리듬단위 내 음절 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듬단위간 시간균형의 문제는 프랑스어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한국어 리듬단위 지속 시간에 관한 실험 결과를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공통된 입장은 한국어의 경우 리듬 단위 내의 음절 수가 늘어나더라도 각 음절이 자신의 길이를 어느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리듬단위간 시간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프랑스어에서 나타나는 리듬단위간 시간균형의 문제를 학습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리듬단위가 갖는 음향적 특성을 고찰해 보면, 표준말의 경우 대개 리듬단위의 첫째 또는 둘째 음절에 액센트가 오는데, 이 때 액센트의 음향특성은 주로 길이와 세기 파라메터로 나타나고, 액센트 위치는 첫 두 음절의 구조에 달려있다. 최근에는 음절을 구성하는 자음의 조음력도 액센트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는 실험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그렇다면 표준어와는 달리 성조를 갖는 대구·경북 방언에서 나타나는 액센트와 리듬단위의 음향적 특성은 어떠한가? 서울 방언을 비롯한 비성조 방언권에서는 길이와 강세가 액센트의 구성 자질이 되는 반면⁵⁾, 경상방언과 같은 성조 방언권에서는 높이가 중요한 자질이 된다. 대구 방언 역시 성조 방언이므로 음의 고저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며, 이러한 성조 액센트가 리듬단위에 실려서 독특한 '성조 어절'을 형성하게 된다. 음의 고저를 바탕으로 한 성조 액센트가 워낙 뚜렷해서 액센트를 구성하는 다른 자질들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듬 단위나 문장 단위 억양에서도 성조 액센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다른 자질들은 비성조 방언에서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구방언은 상승조(R), 고조(H), 저조(L)의 세 성조소를 가지며⁶⁾, 모든 형태소나 단어는 각자 고유한 성조형을 가지는데, 이들을 관찰해 보면 모든 리듬단위는 세 종류의 성조형 RHL₀, L₀HL₀, HHL₀⁷⁾ 중 하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음절 단위인 경우에 '사람들'은 RHL로, '너구리'는 LHL로, '오래비'는 HHL로 발음된다. 한편 음절 수가 확장된 경우를 보면 '사람들에게'는 RHLLL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LLHLLL로, '키 큰 사람들에게'는 HHLLLL로 발음된다. 이처럼 음절이 늘어날 경우 성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기본

5) 이승녕(1960)에서는 서울말의 액센트를 구성하는 주요 자질로 '세기'(stress)를 들었고, 이현복(1964, 1973)에서는 장단과 세기를 들었다.

6) 경남방언은 저조(L), 고조(H), 중조(M)의 세 성조소를 가지며, 경북방언 내에서도 하위 방언에 따라 상승조 대신 저장조(L:)나 고장조(H:)를 가지기도 한다.

7) 아래 첨자는 그 수 이상의 임의의 수를 표시한다. 'L₀HLL₀'형은 고조로 실현되는 하나의 음절과 저조를 가진 0개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한다.

성조형 가운데 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리듬 단위의 첫 두 음절에 액센트가 집중되는 한국어 표준말의 운율 패턴이나 세가지 기본 성조 패턴을 갖는 대구말의 운율 패턴은 프랑스어에서 항상 점진적 상승 또는 하강으로 실현되는 기본 운율 모델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한국인 학습자가 프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이다.

2.3 억양

운율적 사실은 실제로 동일한 음성 특성으로 실현되더라도 그 역할에 따라 액센트 기능(*fonction accentuelle*)과 억양 기능(*fonction intonative*)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액센트와 억양소(*intonème*)가 동일한 자리에 놓여 액센트 실현과 억양 실현 간에 음성 파라미터를 구별해내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액센트는 한 음절이 두드러져 돌출되면서, 언어에 따라서 변별적(*distinctif*), 경계획정적(*démarcatif*), 통사적(*syntactique*), 표현적인(*expressif*)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고, 억양은 한 발화체가 갖는 음악적인 선율(*ligne musicale*) 즉 멜로디로 나타나면서, 이 역시 언어에 따라서 질적인(*qualitatif*) 기능과 경계획정적(*démarcatif*), 통사적(*syntactique*), 표현적인(*expressif*)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억양에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주된 음성 파라미터는 주파수(*fréquence*)로, 성대의 기본 주파수(*fréquence fondamentale; F₀*) 변화가 귀에는 높이 변화로 지각된다. 그러므로 억양이란 ‘목소리의 높낮이가 엮어 내는 말의 가락’ 또는 ‘문장의 각 음절에 부과되는 높이를 연결한 높이 곡선’ 등으로 정의내릴 수 있고, 억양은 음의 높낮이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운율 자질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는 억양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억양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범주를 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는 변별기능을 중심으로 한 음성특성 보다는 변별적 기능은 없더라도 변별적 요소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는 기본 운율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변이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다양한 변이형들의 원형(*patron*)을 도출하여 기본 억양 패턴들을 하나의 체계로서 기술해 보려고 한다.

프랑스어를 말할 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소리는 어휘의미를 실어 나르는 소리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특유의 선율도 함께 전달되는데, 이러한 선율들을 총칭하여 프랑스어의 억양이라 한다. 프랑스어에서 억양은 발화체의 의미전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다소간의 의미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어의 억양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프랑스 음성학자들의 분석결과 한정된 수의 원형을 도출함으로써 억양패턴을 하나의 체계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다양한 변이형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맨 처음으로 억양 패턴의 체계화를 시도했던 Delattre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arton, Wioland, Leon의 저서를 참고해서, 우리가 프랑스어 운율 학습에서 다룰 기본 억양을 다음과 같이 10개의 패턴으로 한정하였다. 억양 곡선은 Delattre가 제시한 표현 방식에 따라 4단계 음역으로 나눈 4선 악보에 곡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내었다.

1. 주된 연속(Continuité majeure)	1.		
2. 부차적인 연속(Continuité mineure)	2.		
3. 종료(Finalité)	3.		
4. 전체의문(Question totale)	4.		
- 서술형(sans mot interrogatif)	5.		
- 의문사형(avec mot interrogatif)	6.		
- 도치형(avec inversion)	7.		
5. 부분의문(Question partielle)	8.		
6. 삽입(Incise)	9.		
7. 동격(Apposition)	10.		
8. 명령(Ordre)			
9. 감탄(Exclamation)			
10. 확신(Implication)			

그림 1. 프랑스어 기본 억양패턴

한국어의 억양은 동일한 분절음 연쇄로 된 문장의 문법적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밥 안 먹어\’와 ‘밥 안 먹어/’를 비교해 보자. 전자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서술문인 반면, 후자는 약간 명령조의 뉘앙스를 엿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표현적 기능은 발화의 상황과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규칙화해서 기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어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기본이 되는 운율 원형들을 도출해 보자. 허용은 한국어 표준말의 경우 서술문이나 명령문,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 등에서는 끝 부분에 내림 억양이 없히고, 문장이 이어질 때에는 수평적인 억양이 없으며 ‘예-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오름 억양이 없힌다고 하였다. 임흥빈은 하강 억양은 완결을, 상승 억양은 미완결을, 높은 억양은 큰 반응을, 낮은 억양은 약한 반응을, 길게 끄는 억양은 확인이나 요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조 언어인 대구 방언은 이러한 억양의 기능이 표준말만큼 뚜렷하지 않다. 앞의 리듬 단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구 방언은 성조 액센트의 지배를 받아 각 어절이 고유한 특성을 지닌 성조 어절을 형성하게 되므로, 문장 단위에서도 그 성조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형이나 화자의 태도, 감정에 따라 잘 변화하지 않는다. 즉 대구 방언의 억양은 리듬단위가 갖는 성조유형과 연계되어 있다.

지금까지 운율적 측면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음절, 리듬, 문장단위의 음성특성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프랑스어 운율 학습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해 보았다. 음절구조, 음절유형, 음절수 인식, 리듬단위 경계 인식과 리듬단위 간 시간균형, 리듬단위의 음향특성, 억양 등의 차이를 실제 실험을 통해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 학습을 통해 개선된 정도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한국인의 프랑스어 운율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근거 자료로 삼을 것이다.

3. 한국인의 프랑스어 운율 실험 분석

3.1 실험방법 및 피실험자

본 실험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음성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음성실험실 내에 설치된 방음부스에서 녹음하고, 녹음된 음성자료를 스펙트로그래프(CSL)를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원어민의 녹음 자료를 다시 CSL Macro에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불러내어 학습자의 발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학습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Macro 기능을 이용하여 피실험자들이 개별 교정 학습을 반복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학습 후 자료체를 다시 녹음하고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학습 전과 학습 후 변화의 추이를 비교 관찰하였다. 이 ‘학습 장치’는 Macro에 별도로 설정한 기능인데, 화면을 세로로 2등분하여, 왼쪽 열은 프랑스인, 오른쪽 열은 피실험자의 발음이 각 항목별로 분석되어 동시에 제시되도록 하였다. 분석 항목은 첫째 화면은 음성파형을, 둘째 화면은 피치와 에너지를, 셋째 화면은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을, 넷째 화면은 협대역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주도록 했다. 그림 2는 J'ai peur du noir를 연습하는 장면인데, 왼쪽 A, C, E, G, 4개의 화면은 프랑스인이 말한 학습 모델이고, 오른쪽 B, D, F, H, 4개의 화면은 피실험자A가 말한 것이다.

한국인 피실험자는 대구 경북 방언을 사용하면서 프랑스어를 3년 이상 정규 학습을 통해 이미 습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 대구 또는 경북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불문학과 석사과정 여학생 2명과 사범대학 불어교육학과 4학년 남학생 2명을 선정하였다. 한국인의 프랑스어 운율을 프랑스인의 운율과 비교하기 위해 프랑스어 원어민의 운율도 함께 분석하였는데, 프랑스어 발음의 모델이 될 피실험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프랑스어 발음교육을 위해 프랑스 Hachette 출판사가 이미 제작해 둔 오디오 테이프로 대신하였다.

관찰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 첫 번째 항목은 음절수의 인식과 음절연쇄에서 음절 나누기와 재음절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 두 번째 항목은 리듬단위 경계인식, 액센트주기, 액센트 음절의 음향적 특성, 리듬단위 간 시간균형, 세 번째 항목은 발화체의 유형에 따른 억양패턴에 관한 것이다.

자료체 작성을 위해서는 프랑스어 발음교육용 교재 *Phonétique* (Dominique ABRY et Marie-Laure CHALARON, Hachette FLE, Paris, 1994)와 프랑스어 회화교재 *Le français et la vie 1*(G. MAUGER & M. BRUÉZIÈRE, Hachette, Paris, 1972)에서 각각의 관찰 항목에 적합한 발화체들을 선택하였다. 자료체 내용을 항목에 따라 제시하면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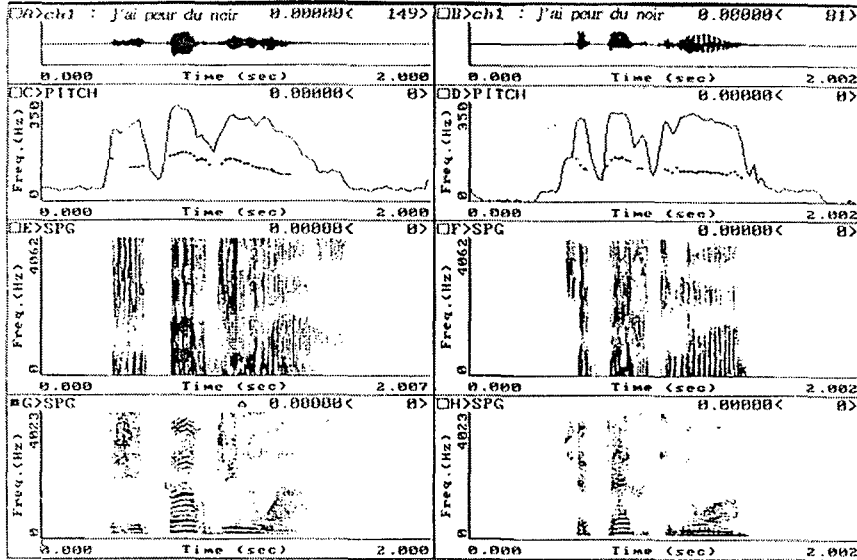


그림 2. CSL의 Macro 기능을 이용하여 프랑스인과 한국인 학습자의 분석, 비교, 반복 연습하도록 해주는 학습장치

3.2 실험자료

1) 음절화(Syllabation)

- 1-1. À demain.
- 1-2. La bouche ouverte.
- 1-3. C'est écrit.
- 1-4. Tout être vivant.
- 1-5. Tout de suite.
- 1-6. Je te dérange?

2) 리듬단위(unité rythmique)

- 2-1. Bon appétit.
- 2-2. J'ai peur du noir.
- 2-3. Je passe demain chez toi.
- 2-4. Je l'ai mis dans la poche de ma veste.
- 2-5. Cet après-midi, j'arriverai à l'heure.
- 2-6. Oh, pardon, désolé
- 2-7. Bravo, c'est très bien, on a gagné
- 2-8. On t'attend, dépêche-toi donc, le bus va partir.
- 2-9. police - policier
- 2-10. téléphone - téléphonique
- 2-11. Il dort. - Il dort bien.

3) 억양(Intonation)

- 3-1. Le théâtre est ouvert à 8 heures.
- 3-2. Tu t'en vas?
- 3-3. Est-ce que vous nagez?
- 3-4. Y a-t-il une question?
- 3-5. A quelle heure vous passerez nous prendre?
- 3-6. Mais Oui, Monsieur, vous pouvez.
- 3-7. Et vous, Karl?
- 3-8. Débrouillez-vous!
- 3-9. Dis donc, quelle merveille, cette bouteille!
- 3-10. Oui, bien sûr, certainement.

3.3 실험결과

위 자료체를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치, 에너지, 협대역 스펙트로그램으로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험 주제에 따라 분류, 도식화하였다.

3.3.1 음절화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음절인식과 실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위 도표에서 원어민과 한국인이 실제 실현한 음절수를 비교해보면, 두 경우(1-3. C'est écrit에서 피실험자 A와 B)를 제외하고는 1음절 또는 2음절까지 차이를 보였다.

3.3.2 리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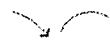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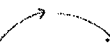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리듬단위 인식과 실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프랑스인의 피치는 점진적인 상승곡선이나 점진적인 하강곡선을 그리는데 반해서, 한국인 피실험자들의 경우는 각 리듬단위 마다 한음절 또는 두음절이 돌돌리게 실현되어 점진적인 상승 또는 하강 곡선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돌돌림을 H로 그외의 음절은 높낮이의 정도에 따라 M 또는 L로 표시하였다. ㅁ이나 ㅂ는 한 음절 내에서의 피치변화를 나타낸다.

표 1. 두 언어간 음절구조 차이에 따른 음절 실현 비교

	프랑스인 원어민	한국인 피실험자A	한국인 피실험자B	한국인 피실험자C	한국인 피실험자D
1-1	2음절 VC-CV	3음절 V-CV-CV	3음절 V-CV-CV	3음절 V-CV-CV	3음절 V-CV-CV
1-2	4음절 CV-CV-CV-CVC	5음절 CV-CV-CV-CVC-CV	5음절 CV-CV-CV-CVC-CV	5음절 CV-CV-CV-CVC-CV	5음절 CV-CV-CV-CVC-CV
1-3	3음절 CV-CV-CCV	3음절 CV-Y-CCV	3음절 CV-CV-CCV	4음절 CV-CV-CV-CV	4음절 CV-CV-CV-CV
1-4	4음절 CV-CVC-CV-CV	6음절 CV-CV-CV-CV-CV-CV	6음절 CV-CV-CV-CV-CV-CV	6음절 CV-CV-CV-CV-CV-CV	6음절 CV-Y-CV-CV-CV-CV
1-5	2음절 CVC-CCVC	4음절 CV-CV-CCV-CV	4음절 CV-CV-CCV-CV	3음절 CV-CV-CCV-	4음절 CV-CV-CCV-CV
1-6	3음절 CCV-CV-CVC	4음절 CV-CV-CV-CVC	4음절 CV-CV-CV-CVC	4음절 CV-CV-CV-CVC	4음절 CV-CV-CV-CVC

한국인의 프랑스어 억양은 대부분 대구방언이 갖는 세 성조형 RHL₀, L₀HL₀, HHL₀ 중 하나로 실현되어 모국어 간섭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HLLLH//...의 경우(2-5. Cet après-midi, ...에서 피실험자 A)처럼 간혹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 연속을 나타내기 위해 리듬단위 끝에서 약간의 상승조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표 2. 두 언어 간 리듬단위 실현의 음향적 특성 비교

	프랑스인 원어인	한국인 피실험자A	한국인 피실험자B	한국인 피실험자C	한국인 피실험자D
2-1		HHL	HHL	HHL	MHL
2-2		LHL//LHL	LHLL	LHLL	LJMM
2-3		LHL//LHLL	HHL//LHLL	LHL//LHLL	LJL//MMML
2-4		LJL//LJLH// LJHL	MMHL//LHHL// MMML	LH//LHHL// MMML	LJH//LHHL// MLMM
2-5		HJLLH// MMMLH	MMJL// LJL//HL//LJL	LJLH// LJLHL	HJ//LJLH// LJLH//LJL

3.3.3 억양패턴 분석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억양이 문장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실현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피치와 협대역 스펙트로그램으로 비교하였다. 앞에서 우리는 프랑스어 운율 학습에서 다룰 기본 억양 패턴을 10개로 한정하였다 : I 주된 연속(Continuité majeure), II 부차적인 연속(Continuité mineure) III 종료(Finalité), IV 전체의문(Question totale), V 부분의문(Question partielle), VI 삽입(Incise), VII 동격(Apposition), VIII 명령(Ordre), IX 감탄(Exclamation), X 확신(Implication)

억양 실현을 비교해 본 결과 점진적 상승이나 하강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보다 급작스런 상승이나 하강으로 돌돌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간혹 상승·하강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나, 평조가 상승이나 하강으로 또는 상승·하강이 지나치게 평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돌돌림은 성조억양의 힘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것이고, 그 밖에는 프랑스어의 문장유형에 따른 운율특성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표 3. 두 언어 간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 실현 패턴 비교

	프랑스인 원어면	한국인 피실험자A	한국인 피실험자B	한국인 피실험자C	한국인 피실험자D
패턴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4. 운율적 과오와 학습결과

본 장에서는 한국인의 프랑스어 발화시 운율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과오는 어떤 것이며, 그 문제를 프랑스어 기본 운율모델에 따라 수정·연습한 후, 학습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녹음시에는 실험자료의 순서를 모두 뒤섞어 관찰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였고, 녹음 후에는 해당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별 학습시간을 약 30분 정도 준 후에 재녹음하였다. 연습에 투자한 시간이 많지 않았으므로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교정 가능성을 검토하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4.1 음절수 늘리기

먼저 음절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실험 결과를 보면, 피실험자 4명 모두가 실험자료 모두를 프랑스인 보다 더 많은 수의 음절로 발음하였다. CCV는 CV-CV로, CVCC는 CV-CV-CV로 한 음절 내지 두 음절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어의 음절구조는 2자음이상의 연쇄를 허락하는 구조인데 반해, 한국어는 두음과 말음자리에서 하나의 자음만 허락하므로, 한국인은 모국어 음절 구조에 맞도록 발음하기 위해 자음연쇄시 무의식적으로 schwa를 삽입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두 언어 간의 음절 구조 차이는 음절 수와 연관되고, 음절 수는 마치 악보에서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음표 수처럼 운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즉 듣는 사람의 기대치와 다른 리듬은 의사소통을 다소간 힘들게 하거나 자연스러움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적인 schwa 삽입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식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 한 후, 재녹음하여 다시 분석해 보았다(표 4).

표 4. 학습후 음절 실현 비교

	프랑스인 원어민	한국인 피실험자A	한국인 피실험자B	한국인 피실험자C	한국인 피실험자D
1-1	2음절 VC-CV	3음절 V-CV-CV	2음절 VC-CV	3음절 V-CV-CV	2음절 VC-CV
1-2	4음절 CV-CV-CV-CVC	5음절 CV-CV-CV-CVC-CV	5음절 CV-CV-CV-CVC-CV	5음절 CV-CV-CV-CVC-CV	4음절 CV-CV-CV-CVC
1-3	3음절 CV-CV-CCV	3음절 CV-CV-CCV	3음절 CV-CV-CCV	4음절 CV-CV-CV-CV	4음절 CV-CV-CV-CV
1-4	4음절 CV-CVC-CV-CV	6음절 CV-CV-CV-CV-CV-CV	6음절 CV-CV-CV-CV-CV-CV	6음절 CV-CV-CV-CV-CV-CV	5음절 CV-CV-CV-CV-CV
1-5	2음절 CVC-CCVC	3음절 CV-CV-CCVC	3음절 CVC-CCV-CV	4음절 CV-CV-CCV-CV	2음절 CVC-CCV
1-6	3음절 CCV-CV-CVC	4음절 CV-CV-CV-CVC	4음절 CV-CV-CV-CVC	3음절 CCV-CV-CVC	3음절 CV-CV-CVC

* (V)는 삽입된 Schwa의 지속시간이 짧게 실현되었음을 표시함

위 자료에 따르면, 피실험자 B의 1-1 *A demain*과 피실험자 C의 1-6 *Je te dérange?*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 후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음절 수가 프랑스인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Schwa의 지속시간이 현저히 짧아진 경우는 많이 나타났다. 한편 피실험자 D는 1-2 *La bouche ouverte*와 1-5 *Tout de suite*에서 어말에 Schwa를 삽입하지 않으려다 앞의 /t/자음 외파단계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절구조를 발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학습 전보다는 개선된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 피드 백을 주는 Macro 학습장치를 이용한 연습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충분히 학습 가능하리라고 본다.

4.2 리듬단위와 성조엑센트

리듬단위 경계 인식 문제는 프랑스인과 한국인 간에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간혹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어 리듬단위의 마지막 음절이 길어지는 특성은 비교적 잘 실현되었다. 그러나 성조 방언인 대구 경북 방언 사용자가 프랑스어 운율을 습득하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는 성조 방언의 엑센트가 워낙 강해서, 피치가 점진적인 상승곡선이나 점진적인 하강곡선을 그리는 프랑스어 리듬단위의 특성 실현을 방해하거나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만일 성조엑센트를 가진 피실험자가 리듬단위 경계 인식을 달리하여 단위 수를 늘린다면 그만큼 돌돌림의 수도 증가하여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프랑스어 원어민과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의 역양을 실험 음성학적으로 비교·연구한 김현기에 의하면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에서 문장 가운데 주어지는 휴지 다음 첫 단어의 시작 부분이 과잉

강세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급격한 상승 억양 곡선으로 드러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인 학습자가 프랑스어 학습 과정에서, 휴지 다음에 과잉 강세를 부여하는 습관은 한국어 액센트 부여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실험 결과에서는 각 리듬단위가 앞서 제시한 대구 경북 방언의 3가지 성조 액센트 유형 가운데 한 형태로 실현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 역시 대구 경북 방언의 성조 액센트 부여 습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실험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랑스어 기본 운율모델에 따라 연습하게 한 후, 재녹음, 분석하였다(표 5).

표 5. 학습 후 리듬단위 실현 비교

	프랑스인 원어본	한국인 피실험자A	한국인 피실험자B	한국인 피실험자C	한국인 피실험자D
2-1		○	○	○	
2-2		○	○		
2-3			○		○
2-4					
2-5					

< ○ 표시는 원전히 학습된 경우를 표시하고, ↓ 표시는 흔들림이 있거나 왜곡이 있는 부분을 표시함 >

위 자료에 따르면 리듬단위 경계는 피실험자 모두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실현하였고, 첫 녹음 자료에서 심하게 나타났던 성조 방언 액센트는 학습 후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음절 수가 적은 리듬단위에서는 쉽게 학습되었으나, 음절 수가 많아 질수록 완전한 실현에 어려움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점진적인 상승 또는 하강곡선의 유형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흔들림의 정도가 좀 줄어들긴 하였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차이를 식별하게 해주는 Visipitch II 프로그램이나 Macro 학습장치를 이용하여, 우선 성조 액센트를 자각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소리를 평조로 내는 훈련을 실시한 후, 프랑스어 리듬단위의 기본 운율 모델을 숙지하는 단계적 학습 절차를 구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리듬단위 간 시간 불균형

한국어와 달리 프랑스어는 연속되는 리듬단위간에 시간균형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 한 리듬단위는 마치 악보의 한 마디와 같아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프랑스어의 독특한 리듬감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앞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먼저 프랑스인의 시간균형 실현상태를 확인하고, 피실험자 4명의 학습전 자료와 학습후 자료를

비교·정리해 보았다. 여기서는 프랑스인과 피실험자 1명의 자료만을 비교·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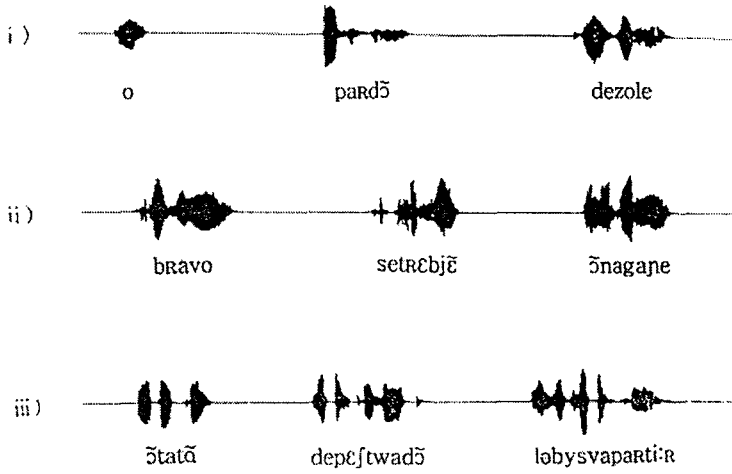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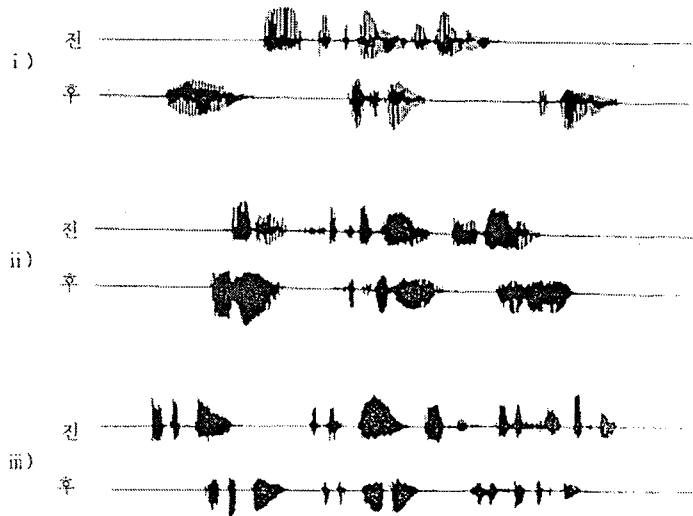


그림 3. 프랑스어 원어민의 리듬단위 간 시간균형



- i) Oh, pardon, désolé
- ii) Bravo, c'est très bien, on a gagné
- iii) On t'attend, dépêche-toi donc, le bus va partir

그림 4. 피실험자 A의 학습 전과 학습 후의 리듬단위 간 시간균형 비교

위 그림 4에서 리듬단위 간 시간균형의 실현 양상을 보면 학습 전에는 리듬단위 간 휴

지가 없고 시간도 불균형을 이루었으나, 학습 후 결과를 원어민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잘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듬단위 간 시간 균형을 실현하는 문제는 피실험자 4명 모두 비교적 쉽게 학습하였으나, 음절 수가 많은 리듬단위를 짧은 시간 내에 발음하기는 좀 힘들었다.

4.4 요약

우리는 효과적인 프랑스어 운율 습득을 위한 기본 운율 모델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변이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각 문형에 따른 기본 억양의 원형에 초점을 두고, 앞에서 선정한 10가지 패턴에 해당하는 문장을 학습 모델로 하여 피실험자들의 억양을 관찰하였다. 한국어 화자들은 변별기능을 담당하는 의문문 억양 즉 상승조 억양은 의무적으로 실현하였으나, 성조 액센트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운율 곡선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때로는 이와 반대로 억양 곡선에 큰 폭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조 액센트는 앞서 다룬 리듬단위 훈련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재차 언급하지 않겠다. 한편 감탄문 억양에서 차이를 많이 보이지만, 이 경우는 강조 액센트가 함께 실려있어 상당히 가변적인 경우이므로 다양한 변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음절 수가 적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억양 패턴을 보이지만, 음절 수가 많은 긴 문장일 때는 점진 상승, 점진 하강 억양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신의 억양 실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Visi-pitch II*나 *Macro* 학습장치를 이용하여 기본 10가지 패턴을 습득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써 다양한 변이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특히 대구·경북 방언 화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프랑스어 운율을 습득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운율 특성들을 비교해 보고, 한국인이 말하는 프랑스어의 운율 특성을 음성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각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Macro* 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안을 마련하여 연습 시킨 다음, 학습 후 결과를 점검해 보았다.

구어 프랑스어의 고유한 리듬은 한국어, 특히 대구·경북 방언과 매우 달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직접 구두 의사소통에서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복 연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효과적인 운율 학습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이미 연구된 운율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실험을 통해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학습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본 것이다. 그 결과 운율 학습 프로그램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프랑스어의 독특한 음절구조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둘째, 문어에서의 낱말 단위와는 다른 구어에서의 리듬 단위를 이해하게 한다.

셋째, 리듬 단위 내 성조 액센트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프랑스어 리듬 단위의 음성 특성에 민감한 귀를 갖도록 한다.

넷째, 리듬 액센트와 강조 액센트를 구별하여 강조 액센트를 배제한 기본 운율모델을 습득하게 한다.

다섯째, 리듬단위 간 시간균형을 느끼게 하고, 시간적인 리듬에 습관이 들도록 한다.

여섯째, 10가지 억양 패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다양한 발화체들의 억양과 강조액센트 구문들을 익히게 한다.

지금까지의 시도가 보다 효과적인 운율 학습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다음 연구 과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미. 1997. *한국어 리듬 단위와 문법 구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 김현기. 1997. "불어 원어민과 한국인 불어 학습자의 억양 비교 연구." *음성과학 1*, 한국음성과학회.
- 문수미. 1999. *한국어 액센트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자음 및 음절구조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 성철재. 1992. "표준 한국어 악센트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21-24*, 대한음성학회.
- 성철재. 1995. *한국어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시간구조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 성철재. 1996. "한국어 운율 구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지속시간과 관련하여." *국어학 27*, 국어학회.
- 유재원. 1988. "현대 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대한 연구." *성곡논총 19*, 성곡학술문화재단.
- 이기석. 1993. *음절구조와 음운원리*. 한신문화사.
- 이문규. 1997. "대구방언의 성조 중화 현상." *문학과 언어 18*, 문학과 언어연구회.
- 이문규. 1998. "대구방언의 성조 체계." *수련어문논집 24*, 수련어문학회.
- 이승녕. 1960. "현대 서울말의 accent의 고찰: 특히 condition phonétique와 accent의 관계를 주로 하여." *국어학 논고*, 동양출판사.
- 이영길. 1992. "억양구의 비교 연구: 국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글 215*, 한글학회.
- 이정원. 1997. "불어의 음절구조분석." *음성과학 1*, 한국음성과학회.
- 이현복. 1973.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 19권 합병호(통권 23호)*.
- 이현복. 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이현복. 1989.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 이호영. 1997. *국어 운율론*. 한국연구원.
- 임홍빈. 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연구원.
- 정 철. 1962. *국어음소배열의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 논문.
- 조운일. 1994. "대구말과 표준말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비교연구: 길이를 중심으로." *말소리 27-28*, 대한음성학회.
- 한국방송공사. 1993. *표준 한국어 발음 대사전*. 어문각.
- 허 응. 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Landercy, A. 1977. *Éléments de phonétique*, Didier-Bruxelles.
- Carton, F. 197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du français*, Bordas.

- Carton, F. 1971. L'accent d'insistance en français contemporain, *Actes du XIII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romane*, Québec,
- Delattre, P. 1951. *Principes de phonétique française à l'usage des étudiants anglo-américains*, seconde édition, Middlebury,
- Delattre, P. 1966. *Studies in French and Comparative Phonetics*, Paris, Mouto.
- Galdin, J.-C. 1974. *Principes de phonétique acoustique*, Travaux et documents.
- Leon, P. 1977. L'accent d'insistance, *Studia Phonetica* 12.
- Malmberg, B. 1974. *Manuel de phonétique générale*, Editions A. & J. PICARD.
- Park, Y. M. 1989. *Aspects syntaxique et rythmique de l'organisation prosodique des phrases en français: étude acoustique des variables temporelles et mélodiques*, Travaux de l'Institut de Phonétique de Strasbourg, 21, pp. 1-210.
- Straka, G. 1965. *L'album phonétiqu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ébec.
- Wioland, F. 1985. *Les structures syllabiques du français*, Slatkine-Champion, Genève-Paris.
- Wioland, F. 1991. *Prononcer les mots du français*, HACHETTE F.L.E.
- Zerling, J.-P. 1979. *Description de cinq voyelles orales du français en contexte et nouvelle classification articulatoire*, Verbum.

접수일자: '99. 9. 10.

게재결정: '99. 10. 25.

▲ 이 은 영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우: 702-701)
 Tel: (053) 950-5165
 e-mail: eylee@knu.ac.kr

▲ 이 문 규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우: 702-701)
 Tel: (053) 950-5821
 e-mail: leemok@hanmail.net

▲ 이 정 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불어교육학과(우: 702-701)
 Tel: (053) 950-4965(음성실험실)
 e-mail: ego0073@hanmail.net